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 년 11 월 12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웰스빌(WELLSVILLE) 증오 범죄 의혹 과 관련하여 뉴욕주 경찰(STATE POLICE)과 휴먼 라이츠 뉴욕 지부(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의 공조 수사
지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웰스빌(Wellsville) 증오 범죄 의혹과 관련하여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과 휴먼 라이츠 뉴욕 지부(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간의 공조 수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주 초, 소프트볼 필드 대기석이 “다시 한번 미국을 하얗게 만들자(Make America White Again)”라는 문구와 스프레이로 칠한 나치 문양으로 훼손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Cuomo 주지사는 증오 범죄 의혹을 전면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편견, 공포 및 혐오 그리고 뉴욕주와 미국의 건국 이념이 된 핵심 가치들을 약화시키는 이들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개탄스러운 행동을 전면적으로 수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행동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포용적이고 개방된 커뮤니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행동 방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며, 우리가 바라는 모습 또한 아닙니다.”

2000년, 뉴욕주는 증오 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인종, 출신 국가, 조상, 성별, 종교, 종교적 관행, 장애 및 성적 취향에 대한 인식이나 믿음 때문에 피해자를 지정해 특정 범죄 중 하나를 저지를 경우, 혹은 그러한 행위가 이러한 인식 혹은 믿음의 결과로 저질러질 때, 증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증오 범죄는 개인이나 집단 혹은 공공 및 사유 재산을 대상으로 자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법률에 따라, 인종, 출신 국가, 종교, 민족 그리고 법으로 보호받는 기타 다른 유형을 기반으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